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여호와 하나님(찬30/새14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효선 집사 2부/최주상 장로 3부/한상섭 장로 4부/이정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얼마나 아프셨나(작곡 진선미)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미가 1:1-5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3:1-37
-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자세히 들으면 만납니다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38) 하루를 일생같이, 일생을 영원같이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찬533/새484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 \*축도 Benediction .....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베델뉴스지 교정을 통해 깨닫는 바

### Learning from Editing Bethel Newsletter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행정목사가 하는 일 중의 하나는 매주 베델뉴스지를 마감하는 일입니다. 각 부서와 팀으로부터 계획된 행사에 대한 광고를 수집하고 서식과 규격, 분량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디자이너에게 넘깁니다. 주일 설교의 본문과 찬양곡, 대표기도 순서, 셀 모임 나눔교재 등을 수집해서 디자이너에게 보내고 편집합니다. 모든 기사와 원고의 최종 편집은 금요일 오후에 이뤄지는데, 베델뉴스 팀장과 담당 목사, 디자이너, 그리고 행정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최종 교정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초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류를 잡아내지 않으면 주보는 수정되지 않은 채 그냥 나가게 됩니다.

늘 교정 작업을 하면서 겪는 사실은 틀리는 사람은 늘 일관성 있게 틀린다는 것입니다. 광고와 글을 주셔야 하는 분들에게 공지를 드려도 베델뉴스지의 양식에 맞추지 않고, 늘 비슷한 패턴으로 틀리게 글을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교정일에 피곤과 원망이 몰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보시는 베델뉴스지를 완벽하게 내보내야 하기에 여러 명이 중복으로 교정을 봅니다. 8면 광고의 경우, 디자이너가 편집하면서 한번 보고, 행정목사가 교정을 하고, 혹시나 보지 못한 오류가 없는가 하여 제삼자가 다시 한번 교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 교정자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오류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여러 번 교정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도 오타자가 발견되고 어색한 문구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력 후에 발견되는 오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베델뉴스 교정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타인은 보는 오류를 나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오류는 다시 보아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인간은 자신의 오류와 결점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교정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안 보이는 것은 끝까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본 것을 타인은 쉽게 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뀌려면 타인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가 나를 뭐라 말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케 됩니다.

As an administrative pastor, one of the things I do is publishing the Bethel Newsletter. I gather announcements of scheduled events from each department. After editing the announcements for format, size, and content, I turn them over to the designer. I gather, edit, and send sermon passage, praise songs, representative prayer, and cell share notes to the designer. Final editing of all articles takes place Friday afternoon. Bethel Newsletter team leader, ministry assigned pastor, designer, and administrative pastor come together for the final editing. This important review time requires absolute focus. Unless mistakes are caught and fixed, it will be sent out uncorrected.

What I learned from constant editing work is that those that make mistakes, make the same mistakes consistently. Even though we notify with guidelines to those who are writing announcements, they don't often follow Bethel Newsletter format. Mistakes are always made in similar pattern. Sometimes I get tired, and resentment grows from repeated editing. Since Bethel Newsletter must be made perfect for our congregation, multiple people perform duplicate reviews and editing. For instance, with the announcement on page 8, the designer edits first while creating the page, then administrative pastor edits. To be sure that there aren't any mistakes, a third person reviews and edi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f an error is missed by the first editor, it's difficult to find that missed error no matter how many times the first editor reviews it. This is the reason for multiple reviews by multiple editors. What's surprising is that even with this system, we still discover errors and incorrect sentence structures. Even after the publication, we discover errors.

What I find every time I edit Bethel Newsletter is that I do not see the errors that others see. Even if I were to review it again,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rror that I missed the first time around. I am reminded of what Jesus said.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Matt 7:3) Another thing I have realized while editing newsletter is that men are sinners that cannot see their own errors and flaws. We are so blinded that we cannot see ourselves.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can never see what we do not see. What I cannot see, others see so easily. Learning this, I realized that, in order for me to change, I need others to see me objectively. The way I can see myself correctly is to find what Bible says about me. God must see me. I need to learn what God's community says about me. How can a sinner like me become whole? We are made whole through the Word and community.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이충경 목사

# 자세히 들으면 만납니다 미가 1:1-5

1.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바른말, 쓴소리를 했는데, 부작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듣고 몹시 언짢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쓴소리는 사실, 유익이 되라고 한 것인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2. 혹시 쓴소리를 들었는데, 유익이 된 경우가 있나요? 유익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쓴소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내려오신다)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자세히 들음으로 주님이 내 삶에 강림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적용하기



예살채플

# 주를 믿는 청년이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시 110:3)

베델의 청년 공동체, 예살이 3월 7일부터 11일 까지 '특새 파이브'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이 파이브를 하듯 손바닥을 짝 펼치면 W와 L이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Worship)가 삶(Life)이 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예살의 '특새 파이브'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번엔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압도적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먼 곳에서만 일하시고 가까운 곳에서는 쉬고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삶과 예살 공동체와 베델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특새 기간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 기도의 무력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6일째까지는. 아니,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금 여리고 성을 도는 6일째 일지 모른다고, 아니 7일째 5바퀴, 6바퀴 일지 모르니 힘을 내서 계속 기도하자고 격려했고 감사하게도 청년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기도하는 한 청년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새 파이브가 끝난 다음 날은 예살의 새가족들을 축하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설모임에서 나눈 후 새가족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데코레이션, 예살과 베델교회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만찬을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살에 새가족들을 계속 보내 주실 뿐 아니라,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예살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살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델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강문구 목사



교육부-AWANA

# 부족함이 없는 인정된 리더로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팬데믹으로 멈추었던 어와나를 3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7년 전, 어와나에서 처음 교사로 섬겼던 그날의 감동이 밀려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킨더부터 초등부 5학년까지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훈련시켜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프로그램인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스포츠 형식을 택한 게임을 통해 협동심, 질서 의식을 배우게 되며 성경공부와 성경구절 암송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어와나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 저희 교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박 목사님의 말씀과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한 뜨거운 기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모임을 위해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교사들이 격려받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어와나는 웹 기반 어워드(Award)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며,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일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복음 중심의 귀한 설교 말씀, 평생의 등과 빛이 될 성경 암송,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정된 리더들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어와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 밭에 예수님의 복음과 크신 사랑이 잘 뿌리 내려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황태영 집사



베델선교-K국

#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K국은 중앙아시아의 북동쪽에 있으며, 중국과 접하고 있고 이곳 열반인에서 비행시간만 20여 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어느 곳에서나 만년 설을 볼 수 있어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현재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유목하며 살아가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보유한 청정 국가입니다.

K국은 인구 90% 이상이 이슬람, 7%가 러시아 정교를 믿는 소위 이슬람국가로, 극소수의 크리

스천들이 배척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청소년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복음의 불모지이지만, 베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작년부터 방과 후 센터를 운영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기선교는 영어, 한글, 컴퓨터 캠프를 통해 방과 후 센터의 아이들을 섬기고, 여가 시간에는 카니발을 열어 게임, 크래프트, 풍선 불기, 사진 찍기 등 즐거운 시간과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외된 장애우가 머무는 기숙 학교를 찾아가 게임과 선물 나누주는 사역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며 찬양도 못 하는 곳이지만 만나는 한 영

혼 한 영혼을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지에서 아침마다 들려지는 QT 모임과 숨죽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단기선교팀원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준비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만났던 장애우들의 해맑은 미소가 잊혀지지 않아 올해도 K국을 가슴에 품습니다. 올해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려 드리길 원하며, 베델 성도님들께서도 비록 현지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재영 집사

영어 중등부-제자훈련

# 영과 육을 강건하게



몸도 마음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청소년기 자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혼란스러운 세상과 매일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험난한 도전 앞에 놓인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영어 중등부(BYM Jr.)에서는 'Sports & Discipleship'이라는 특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금다식(금요일 다음세대 식사) 팀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식사

를 함께 나누며 90여 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절반으로 나뉘어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재미있고도 역동적인 단체 게임과 담당 전도사의 인도로 다윗의 삶을 배우는 제자훈련에 변갈아 참여하게 됩니다. 단체 게임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응원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소그룹을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리더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뛰고 땀을 흘리는 중에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시간에는 다윗왕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

게 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느낀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어느새 어색했던 사이에서 말씀 안의 한 가족, 제자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많은 깨달음이 그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될 이 학생들이 게임과 제자훈련을 통해 영육을 모두 강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델뉴스팀

유아세례

#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며 힘들어했던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시험관 시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시험관을 시도해보고 혹 안되더라도 그 또한 감사하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

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에 따라 보내주신 분들을 통한 기도와 격려 가운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임신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어 보니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만 바라보고 웃고 울고 하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갓난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도 이처럼 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에 비할 수 있는 까'라는 생각이 들며, 포기하려던 저와 남편에게 다시 아이를 갖도록 시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일본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할 때 남편이 저에게 준 이사야서 55장 8-9절 말씀이 생각나며 저희가 그토록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때가 아닌, 남편과 저 둘 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지금에서야 아이를 허락하신 것 또한 주님의 높은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10개월이 된 엘리자 많은 분의 축복과 기도 속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아이가 무엇보다 지혜롭게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원정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입학 안내

Bethel Classical Academy(BCA)는 기독교 고전교육 학교입니다. 고전교육이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어 역사를 거쳐 거듭 발전되었고 '문법, 논리, 수사'의 3학을 기본으로 교육합니다. 단순한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3학을 통해서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식'이라는 낱말과 '신앙'이라는 씨실로 한 영혼의 옷을 만들어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어 진정한 학습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연설과 토론 등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므로 그 안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도록 훈련합니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의 으뜸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복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BCA 학생들은 아침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수업 시간에 성경적 가치관 아래 학문을 배우며 하나님의 창조 때 주신 아름다운 성품과 덕을 회복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없이는 이 교육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육과정의 기본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교육은 위대한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빛나는 역사와 신앙은 세대를 타고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이 귀한 신앙과 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육의 본질은 분해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지식과 신앙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교육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고전교육의 핵심이며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의 설립 목표입니다.

- ▶ 입학 대상: Kindergarten부터 7학년까지
- ▶ 등록: [bethelclassical.org](http://bethelclassical.org)
- ▶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정승락 목사 (714)512-1206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3,4월)	3/26:	①부-김동건	②부-홍대원	③부-조 룡	④부-이현재
	4/2:	①부-이종선	②부-이광수	③부-홍락기	④부-송미진
	4/9:	①부-김 썸	②부-박종민	③부-김근수	④부-신영록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3,4월) | 3/25: 정낙성 4/1: 강정엽 4/9: 강재형 4/15: 강영범

강단꽃(3,4월) | 3/19: 윤미경, 한동희 3/26: 선상균, 장효준 4/2: 김숙영, 김영수, 양석주 4/9: 류다정, 양석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전미림(한의과),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수잔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박헌금은 연두색 헌금봉투로! 오늘 각 예배 중 1년에 한 번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2세 선교 지원을 위한 10불 수박헌금'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QTin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4월 3일(월)-7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7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김홍식 목사의 말씀 시리즈 '봄에 피는 꽃 TULIP'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는 현장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며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 기도학교 3월 연합기도회 베델 기도팀에서 주최하는 3월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베델 기도학교 훈련생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3월 23일(목), 오후 7시(기도회 전 간단한 스낵 제공),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오늘부터 가족(Let's Be Family)' 설명회 '오늘부터 가족'은 야나(YANA)와 협력하여 여름 VBS 기간인 6월 21일(수)-24일(토)에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설명회 일시/장소: 3월 26일(주일) 오후 1시, 할렐루야 채플
섬김 기간: 6월 16일(금)-6월 25일(주일)
섬김 방법: 홈스테이, 재능, 물질 기부 등 다양한 방법
문의: 본당 앞 부스, 김동건 집사 (714)389-1645

\*야나(YANA)는 'You Are Not Alone'의 머리 글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교회 버스 운전면허 클래스 오픈 Commercial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7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필기부터 실기시험에 이르기까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드리고 더불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일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부와 3부 예배 후 주차 사무실 앞에서 신청 받습니다.
일정: 3월 26일(주일)부터 3주간,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문의: 최길석 집사 (213)663-3667, 박세환 집사 (949)887-6944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분실물 확인 방법: 교회 홈페이지 Lost & Found 게시판
문의: 강덕규 집사 (949)294-9680



◆ 교회학교 고난주간 특별집회 교회학교에서 고난주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 4월 3일(월)-4월 7일(금), 오후 7시 30분-9시
예배 장소: [K-1, 유년부, 초등부] 체육관, [유아부] 할렐루야 채플, [소망부] 소망부실
예배 후 특별활동 장소: [K-1] 임마누엘 채플, [유년부] 유년부실, [초등부] 체육관

◆ 교회학교 온타임 캠페인 3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에서 온타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주 동안 매주 예배에 정시(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도착한 학생들은 마지막 주에 시상이 있습니다.

◆ 단기선교팀 모집
① Q국: 난민을 섬기는 사역
일정/문의: 5월 21일(주일)-31일(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② 니카라과: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5일(월)-10일(토), 정광목 장로 (949)232-3963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자(2세)와 봉사자(1세) 모집을 야외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0일(월)-13일(목),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주일 헌금 안내 매년 Tax 보고를 위해 헌금 결산 보고서를 받으시려면, Check 헌금은 메모란에 교적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Cash 헌금은 봉투에 교적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Text-only (949)229-1181

◆ 엘바인 지역 도로 통제 안내 다음 주일(3월 26일)에는 마라톤이 엘바인 지역에 있는 관제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 FWY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안성희/임정연 집사 가정에 딸 주원(Eliana)이 3월 17일(금)에 태어났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만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욱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If You Listen Closely, You Will Meet

Micah 1:1–5

- 1.** There are times that we experience side effects when we give right and honest advice to benefit others. On the flipside, we might also get offended from listening to others' bitter advice. Why would such things happen when the advice was meant to be beneficial? What was the substance of the issue?
  
- 2.** Have there been cases where bitter advice has been beneficial and valuable? Why do you think it became valuable? Have you ever had a life-changing experience where the bitterness you heard during worship service became spiritually a great value? What was the reason?
  
- 3.** Do you understand what it means that the Lord is coming from His dwelling place; He comes down(descends) when you listen closely to the Word? Share if you have experienced when the Lord came down(descended) into your life by closely listening to His Word.

Apply to Life

